

4 종합

기술이전 수입료 사립대 첫 1위 56억 수입 뒀엔 10년의 투자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우리학교의 2025년 기술이전 수입료(56억 원)가 서울대(71억 원)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하면서 사립대 중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기술이전 수입료’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 노하우를 기업 등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실적은 연구비 규모를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 최근 10여 년간 연구비 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한양대 순으로 고정됐다. 연구비 실적 10위권 초반인 우리학교가 상위 대학들을 앞선 것이다.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강천수 부팀장은 우리학교의 기술이전 성과 배경으로 국제영상 표준특허 기반의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구조와 전담 변리사 밀착배정형 랩 컨설팅을 꼽았다.

강 부팀장은 “10년 전부터 국제영상 표준특허를 조기에 발굴하고 글로벌 3대 국제 표준풀에 지속적으로 등재해 최근 3개년간 82.8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글로벌 로열티 수익 채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이 단기적인 기술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우리대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국제영상 표준특허 발굴 및 고도화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로열티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며 “1년간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과 10년간 지어 올린 건물에서 꾸준히 수익을 얻는 것의 차이”라고 비유했다.

국제영상 표준특허는 박광훈(공학)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확보한 동영상 코덱 국제표준 규격 핵심 기술을 말한다. 박 교수는 HEVC, AV1, VP9, VVC 등 코덱 관련 국제표준 특허풀에 900건이 넘는 특허를 등재해 1,100건이 넘는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표준특허 분야 권위자로, 2025년 기준 32.6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며 당해 기술이전 수입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황성연(섬유고분자공학) 교수의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관련 특허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해당 특허는 2024년 3,500만 원 규모의 1차 기술이전 후 기업 추가 수요를 반영해 2025년 12억 원 규모의 2차 기술이전으로 이어졌다.

강 부팀장은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지원 체계를 꼽았다. 산학협력단은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자평가사 등 13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신입 교원단계부터 연구실을 밀착 컨설팅하고 기술마케팅과 계약협상까지 지원하는 조직 체계를 두고 있다.

변리사이기도 한 강 부팀장은 “특허 등록은 시간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교수 개인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특허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힘들다”고 말했다. 강 부팀장은 “전담 변리사 밀착배정형 랩 컨설팅과 국제영상 표준특허 기반의 글로벌 경영상의 모델은 타 대학에서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독자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의 표준특허를 제외한 다른 우리학교의 기술이전 성과는 약 23억으로 10위권 안에 들지 못한다. 박 교수는 곧 은퇴를 앞두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기술이전 수입료에 타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교수 퇴임 후에도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10년 정도는 계속 로열티가 들어올 것이며,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기술이전을 책임질 인재를 이미 섭외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부팀장은 “미리 10년을 준비해서 지금의 성공이 있었듯이 지금은 다음 10년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차세대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과 경쟁력 확보 전망에 대해 “첨단 바이오, AI, 차세대 ICT, 국제 표준특허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제 표준특허 분야에서는 Post-VVC, Open-RAN 등 차세대 표준특허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로열티 수익 채널을 연 40억 원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본인 연구실에서의 박 교수. 배경에 빼곡히 걸린 것은 모두 그가 개발한 표준특허들이다.

(사진=한민 기자)

621개 국제특허, 1,126건 기술이전 박광훈 교수가 만든 연구의 선순환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2025년 기술이전 수입료 56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억 원이 컴퓨터공학부 박광훈(공학) 교수의 국제 영상 표준특허 로열티에서 발생했다. 우리신문은 동영상 코덱 기술 권위자인 박 교수를 만나 기술이전 수입료 최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다.

2001년 우리학교에 부임한 박 교수는 동영상 코덱 표준특허 연구를 토대로 현재까지 국제연구 특허 621개와 국내연구 특허 361개를 등록했고, 총 1,126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다.

기술이전 수입료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노하우 이전’과 ‘특허권’으로 나뉜다. 노하우 이전은 교수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이전하는 것으로, 전수 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반면 특허권은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속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그중 후자의 방법으로 3년간 82.8억 규모의 막대한 기술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

박 교수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시키는 과정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핵심기술을 개발한 후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긴 과정

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최초 출원 후 20년)까지 로열티가 지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현재 박 교수의 국제영상 표준특허 수입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박 교수가 가진 표준특허의 특징은 큰 틀로 이루어진 ‘컨셉 기술’이라는 점이다. 컨셉 기술은 새 규격이 등장해도 적합하게 변경해서 출원하면 다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컨셉을 디자인하는 능력은 공학도보다 오히려 인문계, 자연과학계 학생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며 “AI가 코딩을 대체해나갈 것이니 앞으로는 근본적인 사고를 통해 컨셉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표준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교수 개인의 관리 역량도 중요하지만,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우리학교에서 이 역할을 맡은 기관이 바로 산학협력단이다. 박 교수는 “변수가 생겨서 하루만 오차가 생겨도 등록 못 하는 게 특허”라며 “산학협력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시에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가서 사업을 차리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산학

협력단의 도움이 충분하다고 느껴 학교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강천수 부팀장은 “10여 년 전부터 수백수천 억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거둬들이는 해외 대학 사례를 참고해서 기술이전을 육성해 보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마침 우리학교에는 독자적으로 표준특허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던 박광훈 교수님이 계셔서 다행히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공학도로서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구조는 ‘연구→특허 출원→국제표준→SCI 논문→기술이전→로열티 징수’라는 여섯 단계를 거친다. 로열티 징수는 다시 연구로 이어지며 교수, 학생, 대학 세 개의 주체가 이득을 보는 3-Win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공학자로 살아오며 선순환 구조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그것이 학교에 2억을 기부한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교수 평가는 논문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들의 기술이전 연구 여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표준 연구의 문을 열었는데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도전하겠나”라고 전했다.